

## 주제토론: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 Paper Presentation : 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

20세기 초반에 건축은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을 도입하여 건축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인류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세기가 지남에 따라 동일한 그 기술이 오히려 자연 및 전통의 파괴를 불러와 결국 인류의 생활 수준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말았다. 오늘날 건축은 기술을 순수하게 상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유산으로 하나의 왜곡된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가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술과 전통의 전반적인 관계,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및 아시아 건축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은 이런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 기술시대에 전통은 왜 계속 유지되는가

인류사회는 오늘날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시대의 건축이 기술수준이 높은 시대의 건축보다 더욱 더 훌륭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적절하다거나 혹은 부적절하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가? 과연 있다면, 성공적인 건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기술수준과 그 사회의 전통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건축기술의 실제적인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 ◇ 기술이 어떻게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

건축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혁신이아말로 건축에 있어 신기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시사해 준다. 한 사회 또는 건축분야 모두에 있어 새로운 기술은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그 새로운 무계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옛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건축은 과거 및 현재의 기술혁신에 어떻게 순종 또는 거부하였을까? 기술이 어떻게 건축혁신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이 건축관행 및 더 나아가 우리의 주거공간을 얼마나 변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 〈주제발표〉

- 건축에서의 전통, 기술, 아이덴티티 / Nela De Zoysa(스리랑카)
- 도시와 강철, 실리콘에 대하여 / Michael McNamara(영국)
-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 / Jean Francois Blassel(프랑스)
- 과감한 건축 / Hiroshi Naito(일본)
- 전통과 기술에 대하여 / Kenneth Yeang(말레이시아)
- 전통과 기술의 통합 / 김석철(아키반)
- 참관후기 / 이필훈(태두건축)

## 건축에서의 전통, 기술, 아이덴티티 Tradition, Technology and Identity in Architecture

넬라 디 조이사 / 스리랑카  
by Nela de Zoysa



사람의 행동 패턴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거나, 배움의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여서 개미나 벌, 거미 등은 대대로 전해지는 직감에 의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가 하면, 일본 감자 농장 지역에 사는 원숭이나 늑대, 일부 조류의 경우처럼 환경에 대한 적응법을 전파하는 종도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에서 비롯된 위대한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많이 보아 왔다. Antonio Gaudi의 유기적인 구조물은 개미 언덕의 형태에 비유할 수 있고, Buckminster Fullers 경의 지오데식 돔은 벌집과 비슷하며, Calatrava의 구조물은 신장력을 지닌 거미줄에 견줄 수 있다.

결국 전통은 인간의 시험을 거친 관습과 믿음, 지식과 경험의 집합이다. 아이덴티티는 축적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알아보게 하며, 존재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일군의 특성이다.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발전된 과학적 지식, 특히 산업, 농업, 커뮤니케이션, 무역, 의학, 그리고 일상과 연관된 분야의 지식의 활용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 정신에 기초를 둔 신 소재와 신 기법이 점차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전통은 인간의 시험을 거쳐 옳다고 검증된 것이지만, 지난 50년간 급격한 변화를 보게 되었다. 즉 전통은 '원시적' 이고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전통은 인간에게 이름지 않은 것을 배척하면서 진화한다. 기후, 믿음, 관습이 전통의 저변에 있는 만큼 문명마다, 시기마다 다른 전통을 지니며, 독자적인 건설 환경과 아이덴티티, 통일성을 갖게 된다. 또한 전통은 결코 정적이지 않고, 유입되는 영향력에 의해 변화한다. 스리랑카의 전통을 예로 들면, 식민기를 거치면서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 더욱 활발하고 풍성해졌고 순수한 유럽 스타일이 아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통, 기술, 아이덴티티는 아주 먼 옛날부터 본질적인 것이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구, 환경 및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은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중국 북부의 일부 지역에 가면 땅 속의 개미 집 같은 파격적인 주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황토 층을 40피트 깊이로 파서 만든 주거에서 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중정을 통해 채광과 산소 공급을 해결한 이 주거는 깨끗하고 병충해를 피할 수 있으며,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그 밖에도 진흙이나 통나무, 대나무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 토속적인 기술로 세운 구조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들은 건축의 관점에서는 무시되고 문화 인류학적 차원의 관심만 끌고 있다. 석기 시대 이후에는 석조 기술이 주거의 건설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집트 전통 건축의 무덤과 사원으로 대표되는 석조 기술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 명맥을 이어갔으며, 중미의 마야 문명의 태양 신전, 10세기 인도의 Kajaraho 사원 등을 낳았다. 또한 드리비드와 아리안 문명과 더불어, 중동의 이집트, 페르시아, 시리아 문명, 극동의 중국, 일본, 한국의 문명은 수학, 천문학, 인쇄에 관련된 기술적 사고, 그리고 화학의 발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력이었다. 석조 기술 이후에는 기둥과 인방을 활용한 건설 기술이 등장하였다. 종교 집회를 위해 보다 넓은 공간이 요구되면서 둥근 천장과 아치, 돔이 탄생하였으며, 돌과 벽돌, 목재가 널리 활용되었다. 전통과 기술은 팽창과 침략의 역사에 의해 상호 교류되었다. 실크로드와 알렉산더의 정벌, 이람은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고두보가 되었다. 이람과 그리스를 통해 전파된 인도의 방대한 의학 자료는 서양 의학 전통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아시아의 지적 전통은 격하되고, 지난 몇 세기 동안 만들어진 서양 과학의 전통이 전적으로 활용되면서 정통적인 지식으로서 대학 및 과학 기술 센터에서 연구, 활용되고 있다.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과 함께 나타났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가속적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기술은 1783년 영국의 산업 혁명에서 시작되었다. 캐스트 아이언은 경이로운 재료였고, 증기 기관은 팽창하는 제조업의 욕구에 발을 달아 주었다. 캐스트 아이언에 의한 기술적 발전으로 경간이 긴 다리와 고층 건물이 현실이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건물은 19세기 도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Crystal Palace이다. 유리와 철로 된 이 위대한 전시관은 직경 72피트 높이 198피트에 1848 피트x 48 피트의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1865년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 아치 구조물인 St Pancreas 기차역과 그 시기의 대표적 구조물이자 오늘날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 탑이 1889년 세워졌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그 시기의 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맨하탄과 시카고의 고층 건물을 실현시켰다. 이처럼 급변하는 다양한 건축 형태와 사고는 전통을 현대 건축과 괴리된 것으로 여기게 했다. 산업 혁명은 식민 정책을 통해 인도와 실론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남겼다. 1830년대에 가스등 같은 캐스트 아이언 구조물이 등장했고, 1873년 Pettah에 세워진 새 시청 건물에서도 이같은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영국의 William Morris가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실론에서도 유사한 반작용이 나타났다. 한편 Ananda Coomaraswamy 같은 실론의 학자들은 영국에서 유입된 이러한 과정과 상품 전반에 대해 회의론을 가졌다. 그는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전통을 물려받은 그들이 영국인의 하부 도시적 모델을 따르는데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자신들의 유산을 저버리고 기술적 발전의 이름으로 식민주의 모델을 포용하는 까닭을 탐구했다.

기술적 발전을 이룩한 20세기 근대기를 있게 한 중대한 사건으로 두 번의 세계 전쟁을 들 수 있다. 두 차례의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과학과 수학 개념이 군림하고, 아시아 문화와 얽힌 전통적인 기법은 서양 문화의 추종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프리페브 공법과 철근 콘크리트의 발명은 전쟁이 낳은 수많은 부랑자를 빠른 시간에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건축가는 전통을 저버린 성냥갑의 제공자가 되었다.

스리랑카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고대 실론이 지녔던 건축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다. 고대 실론 문명이 기원전 7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사실을 밝혀 준 Brahmin Script는 기원전 2세기 스리랑카에 강철이 존재했으며, 궁전이나 공원의 연못을 만들 돌을 깎기 위해 고도의 인장력을 지닌 강철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9세기의 이슬람 문헌은 18세기 산업 혁명으로 캐스트 아이언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스리랑카에서 강철 기술을 활용했음을 입증한다.

Anuradhapura 시기 (기원전 750 - 12세기)에는 높은 구조물이 세워졌다.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Jetavana 탑은 높이가 483피트에 달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구조물이다. 고대 실론 구조물이 보여준 기술과 그리스나 로마 문명의 구조물이 시기적으로 평행선을 그린 경우는 없었으며, 이는 실론 문명이 서양보다 앞서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했음을 말해 준다. 기원전 3세기 승려의 집회장이었던 Brazen Palace에는 목재와 돌의 프리페브 기술이 활용되었다. 7층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에는 모두 1600개의 돌 기둥이 세워져 있다. 독자적 수리 체계를 갖춘 Sigiriya 요새와 정원은 5세기에 유래하는데, 세계적인 미스터리의 하나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유산이다. 또한 Minneriya 저수조를 비롯한 뛰어난 관개 시설물을 통해 기원전 250년에 수문이나 밸브를 발명했을 정도의 기술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Anuradhapura와 초기 도시들의 번영은 발전된 건물 기술과 대형 저수지, 급수 체계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산물이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자원은 해안 도시의 국제 교

역을 통해 확보되었다.

Polonnaruwa 시기(11세기 - 12세기)에는 석회석 몰타르에 벽돌을 쌓는 기술이 널리 활용되었다. 벽돌 지붕이 씌워진 Lankatilake는 이러한 구조물 중 최대 규모로, 길이 124 피트, 높이 100 피트, 신전의 폭이 66 피트에 달한다. 12세기에 세워진 Alahena Pirivana는 예술 및 과학을 연구하던 대학 단지로, 뛰어난 디자인의 수술 도구와 저울 등이 발굴되었다. 돌과 벽돌로 된 건물 기술이 차츰 쇠하면서 목재와 진흙을 사용한 토속적 건물 기술이 발전되었다. 목재는 고대 문명에서 가장 먼저 활용된 중요한 재료이다. 14,5세기에 목조 기술로 지어진 Embakke devale는 중세 목조 건물의 좋은 예로, 풍성하게 조각된 목각과 채색된 내벽이 등장한다.

금세기의 기술을 생각할 때 위대한 20세기의 거장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Frank Lloyd Wright는 벽돌과 돌, 목재 같은 유기적 재료의 가능성을 극대화했으며, 자연과 융화된 건축물을 승화시켜 환경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Mies van de Rohe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를 외치면서 미니멀한 개념으로 강철과 유리 건설 기술을 펼쳤다. Corbusier는 룡상과 인도 북부의 찬디가르 프로젝트를 통해 뛰어난 콘크리트 활용 기술을 보여 주었다. 찬디가르 프로젝트에서는 인도의 석조 기념물의 다양한 색상을 띠는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함으로써, 인도적 전통을 구현했다. 구조 공학자이자 건축가인 Oscar Niemeyer와 Candela는 현대의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구조를 최대로 활용한 강력한 건축물을 선보였다.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Louis Khan의 벽돌 건물에는 그 지역의 벽돌 건물 전통이 활용되었으며, Hassan Fathy의 이집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은 지역성, 장소, 이집트인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했다. Kenzo Tange는 일본의 기술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보여 주었다.

이 무렵 아시아에서는 식민 전통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건축가들이 뿌리를 내렸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의 여성 건축가인 Minette de Silva, Justin Samarasekera, 전설적인 Geoffry Bawa 같은 일 세대 건축가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특유의 아이덴티티, 목표, 잊혀진 전통과의 고리를 찾으려 힘썼다. 스리랑카 독립 이후의 건축가들은 크게 전통주의자, 현대적 전통주의자, 근대주의자, 대형 설계 사무소의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통주의자: Minnette de Silva, Ulrik Plesner, Geoffry Bawa, C Anjalendran, Vinod Jayasinghe 전통주의자는 전통적 설계 언어만을 사용한 건축가들로, 기술을 회피하고 과거에서 현대의 문제의 해결책을 빌어 온다. 식민 전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지만, 스리랑카라는 국가적 차원 보다는 개인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데

치중했다. 테라코타, 돌, 벽돌, 기타 천연재와 같은 전통적인 건축재를 주로 활용했으며, 열대 건축물의 핵심인 지붕이 건물의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2. 현대적 전통주의자: Justin Samarasekera, Pani Tennakoon, Anura Ratnavibushana, Mihindu Keerthiratne, Ashley de Vos, Nihal Bodhinayake, Nela de Zoysa 현대적 전통주의자들은 전통에 뿌리를 두지만 기술을 도입해 열정적으로 솜씨 좋게 활용한다. 이들은 개인의 차원 보다는 스리랑카라는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세우려 했다. 천연재 뿐 아니라 인공적인 재료의 활용을 서슴지 않아서, 폴리스티렌, 유리, 강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전통에 뿌리를 두었으면서도 미니멀한 접근을 보이기도 했다. 타고난 모험가이자 탐험가로서 때로는 과감하게 접근하는 이들은 앞으로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실험하면서 다양한 영향력을 일으킬 창의적 작품들을 내놓을 것이다.

3. 근대주의자: Valentine Gunasekera, Ranjith Alahakoon, Hiranthi Welendawa, Madura Prematilake, Suchit Mohotti 이들은 식민 정책 뿐 아니라 전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역량있는 건축가들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강력한 건축물을 선보였다.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지 않은, 미래적이면서 우아하고 미니멀한 경향의 건축을 보여 준다. 그들은 콘크리트와 신 재료, 기술을 이용하지만, 현대적 전통주의자들처럼 기술과의 유희를 즐기지는 않는다.

4. 대규모 설계 사무소: S. Wickremasinghe (Surath Wickremasinghe 설계 사무소), Lakshman Alwis (Design Consortium), Suranjith de Silva (Design Group Five), Elmo de Silva (Kahawita de Silva 설계 사무소) 이들 대규모 설계 사무소는 안정적인 건축 행위를 통해 스리랑카 건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전통이나 기술에 대해 어떠한 친화성을 보이기 보다는, 건축주의 요구나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건축물들을 창출했다. 이들은 논리적인 접근을 펼치면서, 현대적 재료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 사실상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책임 지고 있는 이들은 특정 경향에 흐르지 않는 중립적인 설계를 보인다.

## 결론

누가 다음 세대 건축가가 될 것인가? 그들은 다른 그룹에 속하게 될까? 마이크로 칩 기술이 어떻게 건축에 스며들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전통이 마이크로 칩 기술의 이름으로 뒷전에 물러서고, 알아볼 수 없는 건축이 탄생될 것인가? 곧 알게 될 것 같다.

## 도시와 강철, 실리콘에 대하여 Concerning the City, Steel and Silicon

마이클 맥나마라 / U.K.  
by Michael McNamara



서론: 기술이 전통을 제압한다.

영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Norman Foster는 가장 좋아하는 '건물'로 747 제트기를 소개했다. 일찍이 '새로운 건축을 위하여'를 통해 Corbusier가 선박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747 제트기는 떠있는 호텔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파격적이다. Foster의 접근법은 건물에 대한 개념을 발전된 공학 분야의 고려에 국한한, 기술 전파의 입장을 띤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술이 전통을 제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건축가들이 어디에서나 똑같아도 그만인 제트기를 선호하고 장소에 따른 요건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행의 목적은 비행기 자체가 아니라 가고자 하는 장소와 그곳의 사람들이다. 비행기를 만들어낸 과학자들에게 감사하지만, 건축가들은 장소의 잠재력과 독특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의 기술적 발전이 건설 체계 같은 건설 기술 개념에 치중했던 것에 비해, 미래의 기술은 투영력이나 표현력에 작용한다. 현재의 기술의 혁명은 재료나 방식 보다는 설계 도구에 관심을 둔다. 건설 과정이나 체계가 계속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건축가들은 새 건물 체계가 발전을 보여야만 하는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마치 혁신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앞선 시대 보다 뛰어나게 보여야 한다는데 건물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강연을 통해 나는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증폭제나 상상력처럼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영 기법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형상화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려 한다. 현재의 가능성은 장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장소의 특성과 독특함을 부여하는 요소를 증가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대지를 무시하면서 사용되던 정보 기술의 도구 덕분에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 적극적 개요: 동사로서의 개요, 공공 생활의 무대로서의 대지

정보 기술을 통해 건축가를 대지로 되돌리는 첫 단계는 직설적인 것으로, 이 단계는 기술이 요구되기 보다는 건축 개요를 생각하는 방법만 바꾸면 된다. 일부 건축가들은 건축 개요를 침실, 주방, 식당 같은 명사들의 나열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동사 내지는 행위의 나열로 생각하고, 이러한 건축적 개요가 갖는 잠재력을 활용한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장소로 모은다. 즉 인간의 행위가 설계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거주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 일상 생활의 무대가 되는 도시의 지역과 거리, 건물들은 개인이 맡은 역할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요를 인간의 행위로, 또 건축을 이러한 행동의 안무 체계로 생각하고 나면, 정보 기술을 통해 우리의 통상적 표현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은 시간을 설계의 고려 사항으로 재도입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도면에서 차량은 평면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박스 모양이었다. 오늘날에는 움직이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차량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단순화되었다. 우리는 시퀀스(Bernard Tschumi가 영화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용어)라는 사진 및 컴퓨터 도구를 활용한다. 시퀀스 드로잉과 모델은 건축 공간 속에서의 과정과 행동을 보여준다. 건축적 배경이 이벤트에 반응하는 것처럼 나타난 반면, 행동 과정은 차단된다. 시퀀스는 평면이나 단면을 볼 수 있는 표면에 시간을 도입한 것으로, 이러한 복합적 표현은 이벤트를 하나 이상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차단된 물체 대 상호 연결된 환경

행동의 개요와 시퀀스의 활용에 힘입어서, 나는 건축의 주된 이슈로서 형태에 치중하는 경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설계물에 대한 집착은 건축계에서 풍토적인 것으로, 건물 혹은 물체의 창출은 결국 계약상의 주된 임무다. 하지만 건물 보다 환경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에 도시 장소의 연결성을 보다 많이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각각의 프로젝트를 공적 영역과 연결함으로써 더욱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건축주를 설득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제 형태에 치중하지 않은 다소 색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도구들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다. Le Corbusier의 베니스 병원 프로젝트는 부분들의 관계와 구조의 연결을 증대시

켜서, 베니스의 한 모퉁이에 어떠한 특성을 창출했다. 건물 내부의 관계는 베니스의 패브릭과 연결된 병원의 특성의 일부가 된다. 중앙의 동선 볼륨이나 부분 간의 위계가 없이 기존 도시와 창의적으로 연결된 이 병원은 도시 환경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현대 건축가들이 볼 때 독창적이다.

Enric Miralles의 작품도 교훈적이다. Archery Pavilion과 Community Center는 연속성과 연결성의 관점에서 구성된 프로젝트로, 도시 패브릭의 한 모서리와 중첩을 형성하면서 기존 건물 및 경관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첩적인 공간과 개요는 CAD 프로그램의 레어나 층 구조로 즉각 그릴 수 있지만, 우리는 표현에서의 다양한 차원을 보기 위해 중첩적 도면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다. 시퀀스 속에서의 시간에서 시작해서 도시 장소에서 작용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들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밤과 낮, 계절, 날씨 같은 비 인간적 요소들과 시간의 역사적 차원 및 정치적, 제도적, 개인적인 소유권 같은 인간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 상호 연결성, 거기 있는 것과의 조화

어떤 것이 전통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가? 철근 콘크리트는 전통적 재료인가? 건축에서의 전통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건물 문화를 일군 사람들의 소멸과 관련된다. 후세대에게는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유산이 남겨진다. 흰색의 근대주의 건물들은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영국에 등장해서 빅토리아 스타일의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빅토리아 건물들이 이전의 전통적 경관을 변형시켰다. 전통은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같은 시기나 스타일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도 독자적인 어려움을 갖는다. 대도시에서는 특성의 전통적 도시 패턴을 따르는 것이 특히 어렵다. 런던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대지들 속에 의미있게 삽입할 수 있는 설계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상호 연결성 혹은 원래 거기 있던 것과의 조화로 지칭했다.

전통적인 주변 건물과 강력하게 대조적인 새 건물이 어떻게 해서 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상호연관 과정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대지와 제안을 연결한다. 우리는 복잡한 런던 내부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진 프로그램과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문맥적인 접근과 구별된다. 우리는 기존 패브릭에 담긴 의미와 새로운 공간을 화해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지적, 기술적 도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대지의 특성이 인간적 가치를 지녔다면,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AA의 학생들에게 연결성의 개념을 활용하고, 각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 갈등적인 요인들의 공존을 존중하라고 권한다. 그 장소 뿐 아니라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감각적으로 도시를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진적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도시 요소들의 강력한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의 모델

1994년 베니스에서 열린 르네상스 건축 전시회에 장대한 성당 건물을 묘사한 경이로운 나무 모델이 전시되었다. 이러한 르네상스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는 모델의 개념이 건축가를 대지, 도시의 패브릭,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건설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파라다임이다. CAD 아티스트는 디자인 팀이 발전시킬 환경을 보여주는 1:1의 전자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사진-콜라주는 David Hockney의 콜라주 보다 더 알아 보기 쉬운 것이다. 곧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진적 특성을 지닌 삼차원의 기존 환경 모델에 점과 선, 면을 직접 배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인터넷에 올려지고, 토론과 논쟁을 거치게 될 것이다. 건축가는 새로운 제안이 개인적 차원을 뛰어 넘어 도시의 영역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건축주와 지역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그 도시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결론

생산 수단의 면에서 건축의 규범은 혁명을 거쳤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건축가들처럼 나 역시 연필과 종이로 건축을 배웠다. 설상가상으로 건축은 아래부터 위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설계 도구가 미래의 건축가 사무실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도판이 사라진 것처럼, 기술이 이미 전통을 제압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보 기술 도구의 활용이 그 장소의 의미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는 건축이 예술 혹은 인문학으로 여겨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건축의 이미지 제작 방식이 미술의 그림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이제 건축 창출의 파라다임으로서의 도면은 쇠퇴하고 있다. 초창기의 CAD 판매 전략은 수작업과 같은 것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다. 하지만 전통적 도면을 기초로 한 오늘날의 전략은 매우 광대해졌으며, 이메일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건축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림을 바탕으로 한 예술과 인문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컴퓨터를 기초로 한 정보 작업 방식으로 다가감에 따라, 건축이 갖는 인간적 목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 기술의 도구가 무명의 세계 건축을 영속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도구로 인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장소에 보다 많이 근접하고, 각 장소 고유의 잠재력에 노력을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보된 시각화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 대한 복합적 연구를 해야 한다. 대지의 즉각적 해석으로 몽타주된 삼차원적 표현의 뛰어난 명확성 때문에, 건축가는 비평에 민감해질 것이다. 이것은 분명 제안에 대한 보다 많은 비평과 피드백을 의미한다.

우리의 새로운 도구는 돌, 바닥 포장, 오래된 벽돌 벽에 깬 푸른 녹처럼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세월을 거친 도시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미래의 기술은 장소와 그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표준화된 물체로서의 건축으로 대체해버린 근대 전통을 극복할 기회이다. 도시 생활의 즉각적 드라마와 직접 대응하기 위해 정보 기술의 도구는 픽처 프로그램, 벡터 드래프팅, 후기 산업사회 생산 기법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 주제발표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 Paper Presentation

##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

Lightness, Quickness, Exactitude

장 프란시스 블라셀 / 프랑스  
by Jean-Francois Blassel



### 기술이 전통이 될 수 있을까?

민속학자이자 선사 시대 전문가인 Andre Leroi-Gourhan은 '몸짓과 말' (1964년, 파리)에서 직립한 이후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직립 보행하게 된 이후 이

동 수단이었던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이처럼 조금씩 발전하면서 도구를 갖게 되었다. 경험과 지식, 노력의 축적을 통해 발전된 기술은 신체의 연장물처럼 여겨진다.

도구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변형되었다. 건축 분야를 보면, 불과 목조 건물, 석조 건물, 전기,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강철, 유리, 몰리머, 그리고 기타 합성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건물과 도시에 대한 사고 방식이 현저히 달라졌다.

오늘날에는 위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우주 여행, 정보 혁명, 유전 공학, 신 생명 과학 기술이 세계의 가치를 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문화 및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그 파급 효과는 너무나 지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처럼 도구의 명칭을 그 시대의 상징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전통은 그 시대가 제공했던 최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역으로 기술과 변화는 문화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 전통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도 있다

### 비인간화된 기술

문화와 기술의 갈등은 기술이 인간의 인식을 목살했으며, 인간은 이상적인 과거와 전통에 대한 향수를 열망한다는 해묵고 그릇된 느낌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 양극단으로 흘렀다. 한편으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낙관적인 발전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는 에펠탑에서부터 우주선의 발사까지 현대 기술 행위에 대한 열광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한편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는 괴테나 보들레르 문학에 나타난 대로 기술과 근대성이 인간과 자연에게 줄 수 있는 재앙적인 영향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등장했다. 사실 기술에 의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생활의 활력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 기술은 엄청난 대가를 남기고 사라진다. 파괴와 황폐화된 경관, 자동차 매연으로 질식된 도시의 이미지가 초창기의 밝고 새로운 세계관에 중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기술의 역할에 대한 회의와 각성을 가져왔다.

기술은 어느 면에서 자유방임 경제에 의해 발전되었다. 하지만 기술적 혁신이 시장 이윤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제정적, 상업적 전략의 일환이 되어감에 따라, 복제 가능한 제품을 구상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에 기술이 한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화는 극도로 제한된 형태만을 낳아, 건물의 유용성을 제한하고 장기적 차원의 가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에서 선호하는 것은 기법과 방식의 표준화다. 건축과 공공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경향은 기술의 잠재적 활력과 창의성, 생기를 말살하고, 회색을 띤 억압적이고 균질하는 듯한 기술적 표현을 허용한 정책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단기적 논리는 건설 산업에서 보편적인 두 전략으로 입증할 수 있다.

- 첫번째 전략은 천연재와 인적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는데도, 신속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같은 해결책을 불합리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속한다.
- 두번째 전략에서는 매우 원시적인 기술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여러 요소들을 겹겹이 쌓아 놓고, 상호 작용을

최소화한다. 이 전략은 모든 부분이 서로 관계하면서 시너지를 증대시키는 최소의 유기체를 지향하는 기술 혁신과 정 반대다.

더욱이 설계 과정은 다층 건물의 건설 과정과 유사해 지는 경향이 있다. 문화와 기술의 분리는 위대한 건설가의 역할을 건축가와 공학자의 기능으로 분리시켰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수의 전문가들로 세분화시켰다. 이러한 접근이 불가피할 지도 모르지만, 종종 그 결과물이 전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또 다른 길

기술에 의한 전통의 파괴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기술적 인위물에 인간적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듯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술은 비인간화의 우울한 길을 밟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길은 보다 흥미롭고 활기차지만, 그 길을 걷기란 매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설계자들의 정치적, 윤리적 결단을 요구한다.

최근까지 건물에서 기술이 갖는 보편적 파라다임은 기계였다. 구조 기술 면에서 보면, 19세기의 기계적 구조 장치와 고도로 다이어그램화되고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구조 조직은 놀랍게도 유사성을 갖는다. 무게도 형태도 없는 정보, 교환, 상호 작용을 기초로 하는 두 번째 산업 혁명이 이제 건설의 세계를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로 인해 부상한 새로운 기하학과 새로운 구조, 새로운 CFD는 건물 내부 환경을 위한 능동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보다 섬세하면서도 덜 노골적인 분석 기술의 접근법이다. 기술에 의해 건물의 표피는 민감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통제 및 조절하는 여파지로, 건물 자체는 증대되는 엔트로피의 바다 속의 섬으로 변형되었다.

최근까지 자연은 경험하는 것이었고, 어느 면에서는 위협의 대상이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연을 인간의 행위와 기술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면에서 천연재의 보존은 재료의 경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량성, 최소한의 메시가 결정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쓴다는 것은 여러 층과 요소의 과잉을 탈피해서 성기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를 개발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용이해진 것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현대적 소재가 나왔고, 재료와 구조, 외피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갈대나 나뭇가지, 대나무, 흙, 돌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은 전통 문화에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건물 기술에서 건물 재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물은 궁극적으로 독특한 표현과 미학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특이성은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된 표준화 경향과 배치된다. 사실 오늘날 기술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데 얽혀 있으면서 상호 작용하는 전체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모

순을 풀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문맥과 주변 상황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기술적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기술에 부과된 이러한 역할 덕분에 기술은 건축에서 감수해야 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건축가의 작업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기술이 설계의 중심이 되는 접근법은 분명 특정한 유형의 건물이나 구조물에 적절하다. 기술이 끊임없이 갱신되기 때문에 설계자는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해석과 이해의 여지를 남기는 신비로운 문화적 산물이자 예술 형태로 인식되었을 때, 기술은 보다 친근해지며 궁극적으로 인간적이 된다. 기술적 물체를 설계할 때 추구해야 할 특성은 수학자들이 질문과 답이 완벽하게 동형일 때의 미니멀한 형태를 지칭하는 '우아함'과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은 Italo Calvino가 "다음 밀레니움을 위한 메모"에서 피력한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의 세 요소와 연관될 수 있다.

주제발표

아시아 포럼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 과감한 건축

Bold Architecture

히로시 나이트 / 일본  
by Hiroshi Naito



건축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다. 과거의 기술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축에 거는 기대의 종류가 변하는 것이 실감된다. 건물의 수명이 상당히 긴 것에 반해 세상은 빨리 변하고 불확실하다. 건물들이 언제나 변하고 있는 요인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결국 표현에 있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면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의 거대 체계의 변화에 무력한 건물들을 나는 '약한 건축'이라고 부른다. 또 한 편으로는 경제적 상황이나 에너지 수급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를 '과감한 건축'이라고 이름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에 자산이 될 '과감한 건축'을 배양할 수 있을 지 연구해야 한다. 기술과 전통을 스타일적인 표현에만 사용한다면, 텅 빈

상징주의만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전통은 '과감한 건축'을 태동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는 전통에서 기술을 발견한다. 기술은 전통에게서 여러 특성을 물려 받았다. 우리 시대의 특성의 하나는 기술과 전통을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점으로,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결합시킬 수 있다. 기술과 전통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은 건축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과감한 건축'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체계와 거리를 둔다. 이들은 물리적인 안정성, 견고성, 장소에 대한 존중 등의 특성을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이 건축을 새로운 시각과 희망으로 이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남 아시아는 거품 경제에 의한 혼란에 빠졌다. 1985년에서 1992년의 일본 역시 비슷해서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너무 많은 건물들을 단시간에 지었다. 오늘의 일본은 그 시기를 분석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품 경제 동안에는 기술의 생산적 활용이 근대화의 증거로 여겨졌었다. 역사와 특정 지역의 문화, 기후, 그곳에 기존하는 건물과 생활 양식에 대한 지식이 모두 무시되었다. 나는 건축이 경제적 입안의 장난감이 된 것에, 그리고 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무기력한 건축가들에 무척 실망했다. 도시와 건축은 사회와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 자산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의 기복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일부 건축가들은 극도의 전통주의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이 또한 서양적 근대화를 실현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도시와 건축은 세계적 불안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하드웨어가 되어야 한다. 과감한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통과 기술이 생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건축에 현실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식하고 있는 현실주의를 다시 불러 넣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비록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겠지만, 기술과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간략하게 차트를 만들어 보았다.

기술(건축)		전통 (인간)	
전통 기술	현대 기술	형태적 전통	잠재적 전통
장인	시스템	스타일	분별력
숨쉬는 수작업	대량 생산	주문	취향
경험	표준화		재료의 존중

기술은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로 구분된다. 전통 기술은 장인의 경험과 솜씨를, 현대 기술은 체계적 생산과 대량 생산된 표준화 부품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 역시 형태적 전통과 잠재적 전통으로 구분되는데, 형태적 전통은 건축 스타일처럼 시각화 할 수 있는 전통이며, 잠재적 전통은 구체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호도와 분별력, 재료 처리에 나타난다. 이러한 4 요소를 결합시키면 건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통 기술 + 형태적 전통
2. 전통 기술 + 잠재적 전통
3. 현대 기술 + 형태적 전통
4. 현대 기술 + 잠재적 전통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경복궁 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건설 기법으로 전통 건물을 재건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렸다. 이런 종류의 건축은 첫번째 유형에 속한다. 아래 사진 속의 우리집 근처에 있는 사원은 이전의 목조 건물이 불타서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되었다. 건물의 형태적 측면만을 존중하고 잠재적 전통,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요인은 무시되었다. 이런 종류의 건축은 세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화재와 지진에 강하고 과거의 스타일을 물려 받았지만, 미래에 의미를 갖게 될 특성을 담아 내지 못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1964년 Tange Kenzo가 설계한 요요기 올림픽 수영장에는 그 시기의 현대 기술의 집약되었다. 그러면서도 지붕의 형태는 전통적인 사원을 연상시킨다. 작은 단면들로 분리된 실내 천정 역시 우리 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건축은 네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번에는 전통과 기술의 관계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 우리의 프로젝트 두개를 보여 주고 싶다.

### 해양-민속 박물관 (1985-1992)

어민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수집, 전시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매우 견고한 건물을 설계해야 했다.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에서 나는 옛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과감한 건축의 특성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바다에서 전해지는 염분을 고려해 지붕에는 세라믹 지붕 타일을 활용했는데, 이로 인해 지붕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 되었다. 이상적 지붕의 경사를 취해야 타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 넓게 트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조에는 현대 기술을 활용했다. 창고는 포스트 텐션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전시 홀에는 집성목으로 된 복합 트러스 구조가 활용되었다. 높은 천장으로 인해 공기의 대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계적 냉난방 시설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에는 전통 기술과 형태적 전통이 결합된 반면, 구조에는 현대 기술과 잠재적 전통이 활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형 1과 4가 혼합된 건물이다.

### 마키노 기념관

실험실과 박물관 콤플렉스로 이루어진 이 기념관은 1993년 설계를 시작해서 곧 완공될 예정이다. 설계 과

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했다. 대지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다. 이 때문에 경관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두드러지지 않는 건물을 설계했다. 완공 후에는 건물이 숲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항은 이 지역이 빈번한 태풍의 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 점이다. 산 꼭대기에 위치하는 건물은 기후를 견딜 수 있는 과감한 건축이어야 했다. 현대 기술은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제련소에 제작한 캐스트 스틸 접합부는 나무 단면들을 한데 연결한다. 우리는 전통 목수들이 사실 나무로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생각했다. 다른 각도와 길이로 된 420개의 목재 보가 사용되었으며, 절개부와 접합부를 필요에 따라 달리 했다. 처음에 우리는 전통적 목조 기술이 구조의 복잡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그들은 현대 기술과 호환될 수 있는 정밀한 작업으로 건물을 마감했다. 결국 우리는 전통적 목조 기술과 현대 기술을 결합시키면, 그 위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건물은 유형 2와 4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향수적 역사주의와 비현실적 기술 표현은 분명 환상적인 환영만을 낳는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전통 건축이라고 부르는 있는 것도 한때는 그 시기의 선도적 기술이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술과 전통의 의미를 재고하고 둘 모두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과감한 건축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건축을 위한 조건이 되는 특성을 나열해 보았다.

- 기간 시설의 의존의 최소화
- 고도의 견고성
-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고려
-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
- 전통과의 양립성
- 미래의 표준이 될 수 있을 특성

## 전통과 기술에 관한 글

### Concerning the Tradition and Technology

케네시 양 / 말레이시아  
by Kenneth Yeang



이 글은 서양적 가치와 개념을 공격하지는 것도, 아시아 문화의 우월성을 오만하게 주장하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동서양이 동등하게 만나 협력해야 할 필요에 대해 말하고 싶다.

#### 고대 동양의 업적에 대한 인정

우선 아시아가 고대에 이룬 업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부 국수적 서양인들은 고대와 중세 때 유럽이 아시아에 진 빛을 최소화하려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초창기 발명품과 사고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로부터 전해진 것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 서양의 지배와 근대화에 대한 인식

하지만 그 후 상황이 역전되었다. 17세기 서양 과학의 혁명 후부터는 서양이 광범위하게 세계를 지배했다. 자연에 관한 가설의 수확화와 끊임없는 실험에 힘입어 근대 과학이 비약한 서양의 과학 혁명이 일었던 것이다. 아시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서양인들이 자기 만족과 우월성을 보이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근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자축하는 현실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 아시아의 고뇌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물리적 식민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식민화였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보다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1860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이를 극복한 일본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같은 고뇌와 정신적 식민화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아시아 건축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대 건축 기술을 다루는데 곤란해 하고, 풍토적 건축이나 지역적 건축의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에 호소하고 있다. 사실 세계 어디를 둘러

보아도 아시아처럼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걱정하는 곳은 없다.

지난 20년간 무수하게 많은 동양 학생들이 아시아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논문을 되풀이해서 써냈고, 그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건축가들의 컴퍼런스도 해마다 셀 수 없이 열렸다. 서방 국가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과거를 다시 이으려는 욕구처럼, 현재의 동양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가 열망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아시아 정신은 적절한 균형감으로 젊은 세대를 길러내서,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에 개방적이면서도 선조의 전통과 문화에 뿌리내리게 하려 한다. 이것은 앞선 세대들이 서양의 세상에서 작은 존재였음을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했던 세계에서, 자존심의 고양으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려는 단언적인 시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시아 건축적 아이덴티티의 추구는 사회의 재탄생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갱생과 재발견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시아 건축가들은 계속된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장소, 기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편, 진지하고 독창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 세계적 기술

그렇다면 아시아 건축가들은 현대화와 현대 기술의 건축적 활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서양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서구화가 별개의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서구화라 함은 개인의 자유와 합리주의로 전형적으로 규정되는 서구적 가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는 서구화 없이 현대화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기술이든지 일단 시판되고 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아시아 건축가들은 현대 기술을 건축에 활용하되, 전적으로 혁신적인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형편없는 시인은 영감을 빌어 오고, 훌륭한 시인은 훔쳐 온다'는 옛 말처럼, 좋은 건축가는 현대 기술을 뛰어넘어 독창적으로 활용해서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 아시아의 가치

최근의 경제 위기 이전까지 아시아가 이룬 경제 발전의 속도는 놀라운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 성공의 공로를 아시아적 가치로 돌렸다. 가족과의 합일, 대결 보다는 동의, 권위의 존중과 사회적 이해에의 복종, 검소,

보수성 등이 포함된다.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주장은 빛을 잃게 되었다. 한동안 아시아의 빠른 성장이 서양에 걱정을 만들더니, 뒤를 이은 위기는 서양으로부터 '그것 봐라' 하는 식의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시아가 분명 성장할 것이며, 서양과 같은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아시아 정신 속에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다.

### 혁신에 대한 찬사

아시아 경제는 처음에는 저 비용-저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면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차츰 그 한계를 느끼면서 보다 높은 보상을 주면서 세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건축가들은 건축적 아이덴티티를 찾아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는 차원을 넘어, 세계 건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 속에서 겨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많다. 상품의 이미지 개선, 양질의 상품 제공, 보다 나은 서비스, 혁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건축도 산업과 유사하다. 다가오는 세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는 저 비용-저 부가가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상품의 선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동양과 서양으로부터의 교훈: 생태적 설계와 동등한 동양의 풍수로 본 예

건축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기술로부터 배우면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 설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이 유지되는 미래를 위한 생태적 설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테면 풍수 이론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그린 디자인)가 광범위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수는 유사 과학이며, 생태적 설계에 대한 현대적 접근과의 관계도 직설적으로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환경 기술과 개념의 상당 부분이 고대의 풍수 이론에 빚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저 에너지 설계 전략의 생태 환경적 원칙은 아시아의 토속 거주지의 건물 기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무수한 저 에너지 설계, 재료의 생태적 자동 제어, 생태적 배치 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결론

세계 건축에서 아시아 건축가들이 미래에 맡게 될 역할의 핵심은 동서양의 개념과 가치를 현명하게 조화시키고,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주제발표

아시아 포럼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 전통과 기술의 통합

A New Architecture that combines Tradition and Technology

김석철 / 한국, 아키반

by Kim Seok-Chul



오늘 내 강연의 주제는 고고학적 미래주의 (Archeological-Futurism)와, 아시아의 기술과 전통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전통과 기술

의 분리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이 분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에 아시아의 건축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한 후, 고고학적 미래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내가 작업해 온 여러 다양한 작품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고고학적 미래주의에 담긴 나의 생각, 그리고 전통과 기술의 통합의 창조를 향한 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이 통합은 전통과 기술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일종의 새로운 건축일 것이다.

### 전통과 기술의 분리

먼저, 우리가 건축에서 "전통"과 "기술"에 관해 논의 할 경우, 우리는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전통은 단지 과거의 것, 즉 옛날로 돌아가는 것, 혹은 정해진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초기에 반복을 통해서 우세해져 오늘날까지 내려온 어떤 수행방식, 즉 양식적 경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자유롭게 사용하는 말인 기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지금 소위 "기술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술은 혁신, 변화 그리고 진보의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이 필연적인 상황인가? 기술의 발전은 항상 진보인가? 예를 들어, 유리를 사용한 현대적인 하이테크 마천루는 과거의 주택보다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다 발전한 것인가?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기술과 전통이라는 이원성(二元性)이 두 개의 분리된 것으로서 항상 존재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통해 건

축의 발전을 살펴본다면, 이 두 가지를 대립된 두 힘으로 단순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힘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의 건축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논해 보자.

## 전통과 기술의 진보

전반적인 건축의 역사를 훑어보면, 대부분이 지난 150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진보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과 새로운 건설방식이 도입되기까지는, 거대한 도약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리에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변화의 연속은 있었다. 따라서 재료는 본래대로 유지되는 동안 건설에서 이용되는 특별한 기술 공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구조 원리와 건설 기술에서 발생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미적 표현도 또한 필연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진행된 것이다. 유럽 전통의 경우, 기술이나 건설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미적 표현 또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구조와 형태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설의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체였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로부터 로마네스크, 바로크, 고딕 등으로의 다양한 건축적 양식을 통한 발전이다. 여기에는 미적 표현과 기술적 발전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란히 진행된 동시적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건설 기술이 다시 창안됨에 따라, 각각의 양식은 연속적인 각 시대의 사조 혹은 시대정신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구조 언어로 된 건축의 각각 다양한 다른 양식에서, 그 시대만의 깊이 내재된 철학과 미적 표현을 발견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시각적 표현, 즉 “전통”이라 불리어 온 것과 표현의 수단인 “기술”이 벗어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대의 미적 철학적 정신이 표현되는 것은 이 둘의 수렴을 통해서인 것이다.

## 오늘날의 전통과 기술

산업혁명의 출현과 새로운 건설 재료의 도입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변화했다. 가능성의 영역이 급작스럽게 폭발하여, 전통과 기술이 거의 완전히 분리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형태, 즉 건물의 표현은 단순히 장식적으로 되었다. 따라서 형태나 표현에서 건물들이 약간 다르게 보일지라도, 건축적 본질에서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미적 형태는 더 이상 내부의 구조 자체의 형태화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건축적 표현이 구조와 형태의 결합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구조는 구조이고 형태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구조는 공간을 만

들기 위한 것이며, 이 공간에 장식적 파사드가 첨가된다. 따라서 보이는 면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며 건물은 그 나름의 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건축의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오늘날의 뚜렷한 양상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사조나 시대정신의 표현은 더 이상 없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 느끼는 것은 건축 언어의 단조로움이다.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의 언어나 기호(嗜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후기근대의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통해 실제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길로 가야할 지 모르고 있다. 항공 우주 산업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해마다 생겨나는 믿기 어려운 개발들을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새로운 건축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개별 건축가들의 작품을 예외로 하면, 이러한 기술은 단지 외피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건물자체의 구조나 특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기술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문화 환경 사회 생태학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즉 본질적으로 새로운 건축 창조에 있어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아시아의 상황

아시아의 경우,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하다. 2000여 년간 구조원리와 미적 기준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했다. 지난 100여 년 간 갑자기 등장한 유럽에 뿌리를 둔 건축방식이 아시아의 전통 건축 양식에 소개되면서 혼합되었다. 그 결과는 소위 “국제주의 양식”이 전통적 형태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그 지역의 정신이나 전통을 표현한 건축적 언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서구적인 것이다. 우리가 동양적인 것에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근대 건축은, 완전히 그 자체의 철학과 미학이 결핍되어 있고, 그 장소의 전통이나 건축적 유산과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보다 아시아의 기술과 전통의 분리가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건축은 우리 시대에 근거한 뿌리도 과거에 근거한 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더 심한 것은 아시아에서 진행된 근대 건축이, 서구에서 누적된 여러 실패의 단순한 반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고고학적 미래주의

따라서 동양에서 각 국가에 맞는 고유의 건축, 즉 그 문화와 산업화의 국면을 반영하는 새로운 건축을 창조해야 할 필요의 절박성은 명백한 듯하다. 그것은 과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만 단순한 복제는 아닌, 전통에 뿌리를 둔 건축 입에 틀림없다. 단순한 양식재연이나 모방은 새로운 건축형식을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 나라가 각자의 고고학적이고 신화적인 과거로, 자신만의 선사(先史)로, 그리고 우리 공동의 건축 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근원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단 이렇게 되면, 현재와 그 역사적 과거간의 맥락에서 그 전통의 진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분명해 질 때, 현대 기술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미적 기준에 맞는 진실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한 전통과 기술의 결합에서 우리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건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한 건축이 시대정신의 표현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고학적 미래주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전통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온 방식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몇몇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 해인 불교 문화 단지

첫 사례로 들 작품은 해인 불교 문화 단지이다.

나는 해인사 내에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회의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문화관 설계를 의뢰 받았다. 경상남도 가야산에 위치한 이 사찰은 1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전통 사찰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전통과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위대한 고전 앞에 전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계획함에 있어서 형태와 현대적 기술을 얼마만큼 표현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만 했다. 전통적 사찰 건축의 외형과 양식을 유지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전통과의 단절인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까?

오랜 숙고 후에, 옛 사찰을 현대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구성 체계는 완전히 현대적이지만, 형태에 있어서는 동양의 전통적 사찰 건물의 외관 형태를 모사하지 않는 가운데 반영하는 건물이었다. 전통을 흉내내기보다는 기존 사찰 군(群)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부분적으로 새로 들어서게 될 건물의 대지가 기존 사찰 군의 약간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새 문화 단지의 현대적 외관이 기존 사찰들의 조화를 깨지 않는다는 가능성에 근거했다.

기술의 측면에서는 기존 사찰들의 전통적 기초방식을 수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내가 취한 방식은, 옛 사찰 축조의 지침이었던 전통적 풍수 원리를 이용하면서, 순전히 현대적인 건축 언어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새 문화 단지는 옛 사상과 미적 기준이 현대 기술과 긴밀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옛 사찰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같은 속성으로 된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환기와 냉방 시스템의 계획에서 기존 건물에 이용된 것과 같은 원리, 특별히 약 600여 년 전의 장판각에서 이용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생태적으로 성공적인 방식을 이용하고자 노력했다.

새 문화 단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옛 기술, 즉 우리의 고고학적 과거와 현대적 건축 언어를 통한 고전적 미학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것이라 믿는다.

### 제주 영화 박물관

두 번째 사례로 들 작품은 제주 영화 박물관이다. 이 작품은 첫 작품인 해인 불교 문화 단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 박물관은 영화 관련 박물관으로서 제주도에 위치한다. 대지는 완전히 토속적인 환경의 해변에 있다. 근처에는 다른 건물이 없으며, 이전에도 다른 구조물은 존재한 적이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전통과 기술의 결합 방식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시도를 의미했다.

간단히 말해서, 건축대지는 어떠한 전통과도 완전히 무관한 환경이었다. 유일한 것은, 푸른 하늘, 땅, 바다와 같은 자연, 그리고 대지 저 멀리로 어렴풋이 보이는 제주도의 중심이자 잠든 화산인 한라산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은 일상적인 관점의 의미를 잃는다. 이 환경은 과거나 현재와는 무관한, 즉 역사이전이며 시간을 초월한 원시적 실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전통과 기술의 분리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다다른 점은, 원시적이고 유기적인 무엇, 자연의 근본적인 힘의 표현인 전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탄생이었다. 한라산의 심장인,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자궁에 놓인 화산의 힘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잠재력의 폭발인 것이다.

이상이 내 생각의 한 단면이다.

다음으로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박물관이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영화관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환상의 세계이자 초현실, 실체가 없는 순수한 형상의 세계인 것이다. 영원성 속에 달려 부유하는 무엇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꿈과 환영을 담은 이러한 영화필름의 세계를 표현하는 건축을 원했다. 이 건물은 이러한 생각들, 즉 주변의 원시적이고 유기적인 자연환경과, 결국 실제로 건물로서 드러나게 될 형태 이면에 있는, 나만의 근원적 근거의 배경을 이루는 환상의 세계가 통합된 것이다.

전체 건물의 조형성을 보면, 유기-원시적이고

건설하다. 전경의 매끄러운 부분이 되기까지 풍화된 화산 분출물과 같이 흐르는 듯한 곡선의 배열. 구조의 보다 상세한 측면을 보면, 영화 세계의 표현과 참조에 보다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의 최상부는 두 개의 반구형으로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상징한다. 이는 영화사에 있어서 지배적인 주제이었던 사랑에 대한 영원한 매혹과 남과 여의 끊임없는 만남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박물관의 주안점은, 전통-기술이라는 이원성에 대해 여기에서 결심한 접근방식이, 첫 사례로 든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전통의 부재(不在)가 결정적인 요소이었다.

### 서울 디자인 박물관

세 번째 사례로 들 작품은 서울 디자인 박물관이다. 앞의 사례와 같이 박물관이지만, 대지의 위치가 전혀 다르다. 비록 건축 시공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대지는, 서울의 유서 깊은 이씨 왕조의 궁궐 중 하나인 비원 옆의 경사지이다. 대지와 궁궐은 사이를 지나는 골목길로 분리되어 있다. 이 골목길의 한 쪽은 전통적인 기법으로 지은 담이 있다. 대지 쪽에도 이 담과 나란하게 유사한 담이 세워져 있다.

나는 다시 새 박물관의 설계에서 전통-기술이라는 이원성의 문제에 직면했다. 어떤 형태로 해야 할까? 현대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통적 궁궐 형식을 따를 것인가? 또한 어떤 재료를 써야 할 것인가? 만일 완전히 현대적인 구성으로 하게 될 경우, 고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만일 지나치게 세련되고 하이테크적으로 되면, 전통 궁궐과 다투게 되지 않을까? 원래 있던 고궁 보다 새로 들어설 박물관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디자인 해결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우리의 고고학적 과거에 대한 조사였다. 내가 내린 결론은 내용과 형태라는 두 가지에 요소에 있어서 전통과 기술의 통합이었다. 대지의 한 쪽에 있는 전통 형식의 담은, 600여 년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전통적 표현을 확장시켜 건물 자체로 만듦으로써 이것을 구체화했다. 즉 박물관 대지에서 비원에 면한 쪽은 한국 전통 건축 방식으로 하고, 다른 쪽은 현대적인 유리 철 콘크리트로 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서 기술과 전통, 현대와 고전은 분리되어 인식되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통합된다. 따라서 이 해결은 비원과 그 주변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이원성의 조화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점은, 전통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가지는 보다 큰 범주에 있어서 맥락과의 관계이다. 해인 불교 문화 단지의 경우 전통 사찰에 현대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여기

에서는 고궁의 대지 자체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 부적절했다.

### 조계사

네 번째 사례로 들 작품은 조계사의 재건축이다. 대지는 옛 조선시대 수도의 중심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다. 현재 그 대지는 전통적 동양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주불전(主佛展)과 추한 상업적 양식으로 된 다양한 기능 행정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프로젝트를 논의함에 있어서 내가 보이고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은, 전통과 기술간의 관계성이 건물의 건축적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의 차원까지 관계된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계사를 한국의 고고학적 과거와 넓은 의미의 한국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서울에 별로 남지 않은 영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선 왕조 몇 백년동안 조계사 대지가 바로 옛 조선의 수도의 심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조선 왕조에서 역불 정책을 통해 사대문 안에 사찰 건립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로서 흔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은 주로 지방에 위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통적" 관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루었다.

아쉬웠던 점은 조계사의 주변 지역이 값싼 상업 건물들로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동과 안국동에 흩어져 있는 한국 전통 가옥들 덕분에, 전통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 들어설 조계사의 도시적 배경을 이루는 전통이다.

이러한 맥락의 경우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기술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도시생활의 부분으로서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옛 도시의 잊혀진 조직구조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이 옛 조직구조를 찾고 재구축하는 도구가 된다. 나는 이것을 "도시적 기술"이라 명명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나는 옛 서울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이 작은 지역을 연결시킴으로써, 전통적 조직구조를 회복하는데 기술을 이용하고 싶었다. 현재 이 지역은 심각한 교통량과 값싼 상업건물들로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나의 제안은 이 구역의 전통적 도시 조직을 재결합하고 통합하는 보행자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조계사는 이것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 본부는 정면과 후면 양쪽에서 진입하여 지나갈 수 있다. 정면출입구는 대형 아치형태로 관리사무소로 재건립 된다. 내부는 불교 관련 상점들과 불교 관련 예술품 전시 영역으로 계획했다. 이 두 출입구 사이에는 긴장된 공간을 계

확했다. 이 내전(內殿)의 중심에는 옛 사찰이 있다. 따라서 행정 본부 건물은 기존 사찰의 위엄스런 분위기를 침해하진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소극적인 현대적 스타일을 선택했다. 수용적이고 기존 건물과 우위를 다투지 않는 건축 언어로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전적으로 현대적 언어로 되어 있지만 배경 막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옛 사찰은 생명력을 회복할 것이다.

기술을 주의 깊게 사용함으로써, 소위 "전통"은 이전의 예의(禮儀)와 호흡하며 되살아난다. 반전된 거울효과를 이용함으로써, 20세기 상업적 도시 개발로 황폐화된 도시의 중심에 놓인 전통의 오아시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마지막 사례를 들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다.

1994년에 베니스는 비엔날레 100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축하의 일환으로 스물 다섯 번째 와 마지막 전시관 건립을 위한 대지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엄격한 심사 후, 한국이 선정되었다.

각 전시관은 대표적인 국가의 문화상(文化象)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현존하는 전시관의 대다수는 조셉 호프만, 알바 알토, 제임스 스틸링과 같은 저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관 설계 건축가로 선정되었을 때, 한국의 미와 정신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 한국관이 들어서게 될 대지는, 일본관의 정원 뒤쪽과 독일관 사이에서 러시아관에 근접해 있었다. 이 대지는 라구나(Laguna)강에 면해 있음으로 인해, 조망을 침해하지 않는 건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또한 더 중요한 제한 요소는 베네치아 풍으로 지은 작고 오래된 사각형 형태의 공공 건물인데, 이것은 베네치안 공공 계획법규에 의한 것이어서 철거하는 계획은 배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전통과 기술이라는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건물을 한국관 전체 체계에 수용해야만 했다. 즉 이 옛 베네치아 풍의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전시관과 통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내가 결정한 접근방식은 정확히 고고학적 미래주의의 원리를 보여준다. 나는 동양적 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옛 베네치아 풍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뢰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일하게 가장 적절해 보인 해결책은 산업화, 전통, 그리고 문화 이전의 최초의 조건, 동서양이 분리되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동서양의 이원성을 초월한 이러한 유사이전의 고고학적 원시적 과거에 철학 기초를 둬으로써, 그리고 이 철학을 20세기 후반의 기술과 결합시킴으로써 나는 만족스런 해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전시관은 고고학적 과거와 역사적 미래를 미학적으로 융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먼 동양의 고고학적 과거에서 돌아온 우주선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초현대적인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우주선은 기존 베네치아 풍 건물로 내려와 정착하는 소선(小船)으로 구성되었다. 지붕의 돛대와 밧줄 이미지는 라구나강에 정박한 상선(商船)이란 전통의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개념은 기술적 열망이란 점에서 완전히 미래적이다. 하지만 이 열망 또한 그 근원적 뿌리는 고전에 둔 것이다. 이 개념을 고고학적 미래주의라 명명한 이유는 이상과 같다.

### 결론

이상은 내가 오늘 사례로서 준비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 내가 전통과 기술이라는 이원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간단하게 종합함으로써 내 강연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 아시아는 우리의 과거와 연결된 끈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우리 전통만의 고유 언어를 잃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를 회복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세계문화의 기술적 진보를 거부하지 않는 범위에서야 한다. 불행하게 우리에게는 전통 언어와 기술 언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고고학적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고학적 뿌리, 즉 우리의 문화와 산업화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전통은 경향이 아니다. 전통은 그 자체가 가치이며, 민중 정신과 산업화의 핵심이 담긴 것이다. 지역성은 전통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기술적 영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

동양에서는 건축의 발전은 단절되었다. 과거에는 각 국가가 침략과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외적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는 없었다. 전 세계를 휩쓴, 특히 전후(戰後) 서구의 영향에 의해, 아시아 국가들의 건축적 전통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침해되기 이전 그대로의 상태, 말하자면 각각의 문화 DNA를 찾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찾아 파 내려가고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우리의 고고학적 원시 뿌리, 즉 우리 아시아 공동의 유산과 20세기 서구의 영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전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와 현대 기술의 전망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과거의 정신과 우리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진정한 우리만의 건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기술에 의해 표현되는 고고학적 과거의 미적 문화적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에 기초한 창조성이다. 이것이 고고학적 미래주의이다.

##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참관후기

이필훈 / 본협회 국제위원, 태두건축

제10차 아카시아포럼 행사 중 포럼세션(Forum Session)은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술과 전통'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기술과 전통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건축사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 9월 15일 포럼 첫째날

오전 9시부터 세션이 시작되었다. 오전에 3명의 건축사들이 발표를 하고 점심식사 후 발표자와 사회자 그리고 패널리스트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의장인 홍콩대학의 베리 윌(Barry F.Will) 교수가 "기술시대에 전통은 왜 유지되는가?"란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발표자들을 차례로 소개하는 것으로 세션의 문을 열었다.

첫 발표자는 스리랑카의 넬라 드 조이사(Nela de Zoysa)로 이번 아카시아건축상에서 산업용건축물 부문의 금상을 수상한 여성건축사였다. 조이사는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 기술 그리고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먼저 전통과 기술 아이덴티티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건축에 있어서의 이들 전통과 기술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존재했고 적용되었는가에 대해 역사적 예와 유명건축사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스리랑카 독립이후 자국 건축사들을 전통주의자, 현대전통주의자, 현대주의자, 대형프로젝트 수행자로 구분해서 스리랑카의 현재 건축상황을 분석했다. 결론으로 '마이크로칩 기술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전통은 어떤 형태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견보다는 청중들이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감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의 김석철씨였는데 그는 이번 아카시아건축상에서 제주 신영 영화박물관으로 연구소/사회시설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게돼 발표자로서의 무게를 더했다.

'전통과 기술을 조화한 새로운 건축'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해 나갔는데 전통과 기술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대한 진지한 의문과 현대에 있어서의 기술과 전통의 의미, 특히 아시아국가들에게 들이닥친 급작스런 서구화로 인한 전통파괴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고유한 건축의 훼손에 대해 분석하였고, 특히 김석철씨 자신의 건축철학이기도 한 '고고학적 미래주의'를 설명하면서 이와 관계된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했다. 아시아에 있어서 서양의 현대건축이 끼친 영향

으로 인한 전통의 파괴를 복원해야 하며 그것은 유행적인 전통 이전에 자리잡은 고고학적인 DNA를 발견해야 하고 이것을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고학적 미래주의'의 의미라는 것을 결론으로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의 장 프랑소아 블라셀(Jean-Francois Blassel)로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 블라셀은 건축과 구조를 겸업하고 있는 건축사로 특히 고속전철 역사 등 한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설계를 담당중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건축사이다.

'전통이란 그 시대가 제공한 최첨단 기술의 연속'이란 분석으로 전통과 기술이 대립관계가 아님을 설명했으며, 기술이 전통과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기술의 비인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자신의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인간과 주변환경, 다양한 자연적 소재를 이용한 기술의 인간화 가능성을 소개했다. 또한 문맥과 주변상황의 특성과 현계된 기술적 해결책은 '우아함'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특성은 칼 비노(Italo Calvino)가 '다음 밀레니엄을 위한 메모'에서 피력한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의 세요소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에 건축에 있어서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끝으로 오전 세션을 마쳤다.

점심식사 후 시작된 오후세션은 패널리스트들의 간단한 의견발표와 의장, 좌장, 오전의 주제발표자, 패널리스트들이 둘러앉아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싱가포르 건축가인 타이 켅 순이 맡아서 진행했고 패널리스트로는 일본의 토모시 가토와 태국의 아너손(Anusorn Paksukcharern)이 나와 간략히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발표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의에는 개막식 발표자로 나와 개막연설을 했던 M.I.T대학 스탠포드 앤더슨 교수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좌장을 맡았던 타이 켅 순이 주제보다는 발표자가 언급했던 단어들에 집착해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바람에 좌장이 오히려 패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세션을 진행하는 식이 돼버려 청중들을 혼란시켰다. 패널리스트들의 지적은 비교적 날카로웠으나 주제를 비켜가는 답변들이 많았고, 회의가 영어로 진행된 관계로 영어권국가가 아닌 답변자들은 동시통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발표한 건축사들은 자신이 주장한 건축관과 제시된 프로젝트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설득력이 약한 점이 아쉬웠다.



## 9월 16일 포럼 둘째날

16일은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 교수이자 필리핀건축연합 회장인 올란다 레이스(Yolanda D. Reyes)가 의장을 맡아 '기술이 어떻게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시작했다. 레이스는 먼저 발제에 대해 「건축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혁신이야말로 건축에 있어 신기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시사해 준다. 한 사회 또는 건축분야 모두에 있어, 새로운 기술은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그 새로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옛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건축은 과거 및 현재의 기술혁신에 어떻게 순종 또는 거부하였을까? 기술이 어떻게 건축혁신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이 건축관행 및 더 나아가 우리의 주거공간을 얼마나 변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발표자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AA School에서 강지도 하면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맥나마라(Michael McNamara)였다. 그는 '도시의 강철, 실리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논의를 열었다. 맥나마라는 서론에서 기술은 전통을 제압할 것이라는 근대건축의 논의에 대해 반박하고 건물은 비행기같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이용수단이 아닌 한 장소에 지어지는 목적물로 장소의 특성과 독특함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거를 폈다. 주변환경과의 연계, 삶의 시퀀스를 담는 공간, 도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축설계기법이 발달되어 전통적인 방식의 설계기법이 없어지고 건축이 예술, 인문학의 경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간적 목표를 상실해선 안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의 히로시 나이토(Hiroshi Naito)는 '과감한 건축'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과감한 건축'이란 사회의 거대 체계의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유행과 스타일을 따르기보다는 분별력있는 건축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는 자신의 건축적 의견을 밝힌 뒤 기술과 전통이 과감한 건축을 태동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토는 결론에서 '과감한 건축'을 위한 조건들로 기반시설 의존의 최소화, 고도의 견고성,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고려,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낡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 전통과의 양립성, 미래의 표준이 될 수 있을 특성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말레이시아의 켄 잉(Kenneth Yeang)으로 지난 북경 UIA대회에서 아시아건축

가를 대표해 인도의 찰스 코레아와 더불어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던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건축사이다. 켄 잉은 동양과 서양문화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최근 아시아가 갖는 문화적 콤플렉스를 지적하고 아시아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논의가 근 20여년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전통에서 끌어내는 아이덴티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거아래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 지역풍토와 환경, 동양적 풍수이론에 적합한 '그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시아건축이 발전적 방향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폈다. 세계 건축에서 아시아 건축사들이 미래에 맡게 될 역할의 핵심은 동서양의 개념과 가치를 현명하게 조화시키고,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란 결론을 끝으로 오전 세션을 마쳤다.

오후에는 파키스탄의 자이캄 제프리(Syed Zaigham Jeffery)를 좌장으로 한국의 이상해 교수, 홍콩의 청와난(Chung Wah Nan), 인도의 패트릭 몬테이로(Patrick Monteiro) 등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주제발표를 했고 첫날과 같은 방식으로 패널 토의에 들어갔다. 자이캄 제프리는 첫날 타이 켅 순의 사회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던 아카시아 포럼의 원로로서 예상했던 것처럼 익숙하게 사회를 진행했다. 이들 동안의 포럼세션은 연사들의 성실한 준비와 의장, 좌장, 패널리스트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무사히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몇몇 아쉬운 점들을 남겼다.

우선 회의장 주변의 공사로 인해 패널 토론중 공사소음이 심해 몇 번씩 연사들의 말이 끊기는 일들이 발생했으며 발표자의 강연이 오전에 있고 오후에 패널토론이 있어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오후의 토론에 참석할 이유가 찾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진행상의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발표자와 패널을 한데 묶어 한 건축사가 발표를 하면 그 의견에 대해 바로 패널토의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더라면 청중들이 하루종일을 세션에 할애하지 않고서도 발표자별 시간에 맞춰 세션에 참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더 큰 아쉬움은 국내 건축관계인사의 인식부족 및 참여부족이었다. 특히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제일 중요한 손님인 국내 건축사들의 참여가 너무 낮았다. 물론 건축주변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사무실이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때 국제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낱 일없는 한량들의 놀음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없던 시절 루이스칸의 건축적 사고가 건축연구모임을 통해 그 깊이를 갖기 시작했다는 걸 한번쯤 돌아켜본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